제345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9. 7. 1 (1)

연중 제13주일

기도서 P. 380 B해
제1독서(지 혜 1. 13—15)
제2독서(고 린 Ⅱ 8.7.9.13—15)
복 음(마 르 5,21—43)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론

최고 멋진 사람

오 현 택 신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멋이 있읍니다. 그 멋은 지위와 권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크게 혹은 적게 하느님과 윗사람으로부터 부름(소명)을 받았고, 이 소명이 중대하고 거룩할 수록 책임도 커지고 소명의 값어치도 달라집니다. 소명에는 항상 응답(예)과 파견이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성부)께서 주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교회의 머리로 부르시고, 주 예수님은 이 소명에 절대적으로 순종(응답=예)하셨고 즉시 파견되셨읍니다.

주,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써 얼마나 멋지고 완전한 사람이었읍니까?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읍니다.

나를 따르라(마태오 1장17). 너는 베드로라 부르리라(마태 16장18절). 네가 세상에서푼것은 나도 하늘에서 풀리라(마태오 16장19절). 너 나를 사랑하느냐?…내 양을 치고 고양을 치라(요한 2, 15).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직접 대리자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황으로서 주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소명에 확실한 응답을 하였고 또한, 주 예수님의 전권을 이어받아 인류구원과 사회정의 평화를 위하여 파견되셨읍니다. 교황 또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파견되신 것입니다.

교황은 교회의 볼 수 있는 최고 수령으로서 "최고 멋진 사람"으로서 세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읍니다.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보십시오. 역대 교황이 그랬듯이 어둠을 밝히는 커다란 바위!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 발탁(소명)된 이후 그의 지난 생애와 현재의 처신(파견)을 여러분은 보고 듣고 계십니다.

교황 당선후 첫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라" "나는 교황 지명수락을 두려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응답=예) 정신과 성모 마리아의 신뢰가운데 이를 수락했다"는 말씀, 또 지난 폴란드 모국 방문때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읍니까?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류구원을 위해 투쟁하라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을 하고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읍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한 사람으로서 또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느님과 주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또 거기에 응답(세례성사)했으며,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구원사업) 사회정의와 평화건설에 봉사하도록 파견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최고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멋진 사람입니다. 이 "멋"은 인류공동체와 하느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봉사 실천으로써만 영원히 멋진 사람이 됨을 명심하고, 각자 우리의 환경·지위·직무에 따라서 분투합시다.

〈서학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토요일의 열기를 잡아라.

토요일 밤 9시, 시내버스가 아무 말도 없이 전주의 동맥인 팔달로에 3분이상을 섰다. 차들이 밀린다. 신호등도 없는 곳에서 섰으니, 사고가 난 것인가? 아니다. 서 있던 버스가 좌회전을 한다. 주유소 앞이다. 각종 차량들이 제멋대로 머리를 들여대고 있다. "아하, 내일은 기름을 못넣는 날이구나!" 물가가 마구 올라도 에너지 파동때문이겠거니 하고 참아 내기만 했던 서민네들이지만 무더위 만원 버스가 말도 없이 서버리니 숨막히는 고통으로 석유위기가 살갗에 와 닿는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자는 소비절약 운동이 한창인데도 고급 수입상품이 날개돋힌듯 잘 팔린다는 보도가 있다. 중앙시장 길바닥에 수북히 쌓인 서민들이 입는 여름용 파자마 한 장이 650원이다. 그런데 외제 원단으로 만든 여자잠옷이 2~3만원, 팬티가 2천원, 양말이 4천원, 스카프가 5만3천원이란다. 이렇게 비싸도 제법 많이, 수입품 코너 옆에 있는 국산 의류 점포의 2배가량이, 팔린단다. 왜들 이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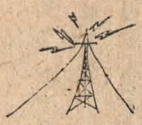
시원한 기계, 에어컨도 잘 팔린단다. 에어컨을 쓰면 전기의 소모가 많다. 여름철에는 각 가정의 전기소비가 많다. 이걸 규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조절 인상했다. 퍽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남는다.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학교는, 엄청나게 오른 전기요금 때문에 비가 오는 어두운 날에도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전기를 켜 줄 수가 없다. 가난한 여럿이 모여 세들어 사는 집의 전기요금도 문제가 생겼다. 고아원도 그렇고.

소비절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속속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 굳이 일요일에 기름을 팔지 않기 보다는, 차마다 필요한 기름량을 정하자. 자가용족의 주말놀이를 규제하기 위해(사실은 규제도 안되지만)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숲정이 산책

용기있는 사람이 많았다

□ 교황주일



「어느 누구도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없다」

김 준 호 신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국이자 공산국가인 폴란드를 방문한 획기적인 대사(大事)를 치뤘다.

본 원고는 교황 성하께서 폴란드 방문중 6월 2일 수십만 군중이 모인 와르샤의 「승리의 광장」에서 미사를 주례 집전하시는 중에 행하신 강론을 L'OSSERVATORE ROMANO에서 발췌한 요약이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강론에서 인류와 모든 민족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동포여,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여, 우선 내가 한 순례자로써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찬미 노래를 부르고 싶읍니다.

우리는 수세기 이후 첫 순례자 교황이신 고(故)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폴란드에 특히 Jasna에 방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사실 그 분은 폴란드 방문의 그 희망을 지닌 채로 슬프게도 이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으로써 이 어려운 조건 아래 그토록 원하셨던 그 방문의 희망이 어떤점에서 이제야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선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하는 백성이고 또 그런 사명을 지니면서 인류 역사를 걷고 있는 순례자로써의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때는 「바티칸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의 교황」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바오로 6세의 그와 같은 희망을 이제 내가 성취할 수 있게 허락되었읍니다.

바오로 6세께서 돌아가시고 또 나의 전임자이신 요한 바오로 1세의 몇 주간 지속한 짧은 교황직을 지내신 후에 나는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통하여 Krakow(스타리슬라우스 주교좌) 교구장직에서 부터 추기경들의 투표에 의해 로마의 성 베드루 좌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즉시 실현하지 못하고 떠난 바오로 6세의 폴란드 방문, 그 희망을 성취하는 일이 곧 바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았읍니다. 따라서 본인의 순례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특별한 경조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폴란드 민족의 아들이요. 폴란드 땅의 아들이며, 수세기동안 변함없이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도 바로 이 시대에 왜 내가 교황직에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드루와 다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데아, 사마리아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읍니다. (Act 1 : 8)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에 있어서 폴란드는 특별하게 책임있는 증인이 되었다고 할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러나 특별한 환경에 처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인해야 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겸손과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 모습을 다시 새롭게 깨닫기 위하여 바로 이 땅, 이 장소, 이 길로 그분이 다시 와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읍니까? 그러나 내가 이 순간에 감히 단언한 이 모든 것을 받아드린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의무와 책임들이 부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자신이 있읍니까?

교회는 이 폴란드 땅에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인 그리스도를 데려왔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의 본성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없이 그 자신을 충분히 이해할 능력 조차도 없읍니다.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인간의 진실한 존엄이 무엇인지 인간의 참다운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인간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지 — 인간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물음은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것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배척될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의 어떤 역사로부터도 결코 배척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로부터 그리스도의 배척은 오히려 인간에게 역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폴란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지나간 전 인류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는 무엇보다 국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민 각 사람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 열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만이 각 개인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는 인간성의 발전과 인간의 지적, 심적, 양심에 대한 국가의 공헌에 비추어 평가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인간성의 발전과 인간의 지적, 심적, 양심은 문화의 가장 깊은 흐름이며, 문화의 가장 강력한 바탕이고 핵심이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없이 과거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간성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공헌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자라서 그의 뿌리 때문에 어느 바람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거목의 참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세세대대로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인생의 행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따르며, 교회의 신앙으로써 그에게 고백한 모든 크리스챤뿐 아니라, 멀리 교회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날의 인류 역사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또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또 그 어떤 조건으로도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결코 배척할 수는 없읍니다.

〈교구청 교육·홍보실장〉

이리의 새 구원선(救援船)

□ 새소식

—3억 3백만원 들여 1년만에 축성

"헌 벽돌 한 장이라도 건지겠다"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의 땀, 3천여만원을 봉헌해준 본당신자들의 정성으로 3억 3백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인 창인동 새성당이 준공, 축성되었다. 축성식이 있던 예수성심축일(6월 22일), 장마철에 접어들었다는데도, 날씨마저 축성을 축하해주듯 구름 구경하기조차 힘들었다. 교구내 사제들과 여러 본당의 하객들, 지역사회의 손님들과 이리의 교우들로 발 놀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붐빈 축성식은 세시간을 넘겼어도, 찌는듯한 더위 따위는 신자들을 흩어놓지 못했다.

1955년에 신축된 성전이 이리 도시계획인 인북선 개통으로 철거되어, 옛 시공관에서 미사를 봉헌해 오다가 작년 6월 18일에 기공식을 갖고 1년여에 걸친 공사끝에 축성식을 갖게된 새성당은 3층으로 총건평 787평이다. 성전이 3층에 자리잡고, 2층에 사제관과 제반 부속 시설 및 유치원, 1층이 신용조합과 익산농협 등의 임대건물로 꾸며진 새성당은 멀리서서 바라다 보면 한 척의 커다란 배(船)를 연상케하는 이리의 명물이기도 하다.

축성미사에서 김재덕 주교님은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다시 깨달아, 이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를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축성식의 치사에서는 "그간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치하하며, "한국 최초의 자치(自治) 방인(邦人)교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기를"당부하셨다. 특히 3억이라는 경비로 10개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강조하신 김주교님은 "항상 감사하며, 남은 성전을 지닌 신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갖는 것을 잊지말라"고 당부하셨다.

모든 신자들이 벽돌을 깨고, 잔치의 음식을 마련하고 헌금을 했지만, 특히 오승엽(전자 올겐 기증)·김수열(14처 목각과 제대 십자가 기증)·이관구(감실 기증)·익명씨(제대 기증)등의 봉헌도 아름다웠다. 사도회장 김은홍씨는 그 공로가 주교님에 의해 표창되었고, 이진기(삼양건설 사장)씨는 시공자로서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외에 현장사무소장 국재환씨와 설계사무소장 이재성씨에게는 본당신부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하느님께 신심을 울려준 성가(隊長 노동길)와 축창(김사비나 연식) 또한, 그간 온갖 심혈을 다 쏟으신 前주임 김용태(관리국장)신부님과 마무리짓기에 애쓰신 現주임 김영신 신부님의 업적과 잘 조화를 이루는듯 했다.

사진재료·사진기계·도산매
칼라필림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신일선풍기!
신일선풍기는 (금, 은, 시계)
황 시 계 점 으로
황 의 성(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옆
☎ ③ 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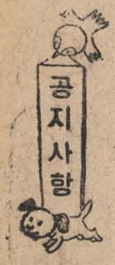
소비자보호에 관심있는분 상담환영!
신 세 계 시계점(신장개업)
금.은.보석.각종시계
〈신용판매. 책임수리〉
①계(조직)판매환영 ②월부, 납품
③교우, 학생 특별활인
장소 : 동문사거리 전화 : ②6718
장 상 준 드림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난방닥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 주 광 고·공 업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교우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세 운 식 당
전화 ② 8530
군산시 신창동 신생그릴 앞
주 황베르니카(기복)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교리교사 대의원회…오늘 오후 2시, 가톨릭 센타에서
   ① 각 본당에서 1명씩 꼭 참석하기 바람
   ② 안건…하기특별교리와 교재구입 및 하기수련회 개최에 관한 일
2. 대신학생 하기 콘페렌시아…8〈일〉~11일〈수〉, 지리산 뱀사골에서
3. 신학생 후보자를 위한 성소 교육…30〈월〉~8월 1일〈수〉
   관심있는 젊은이와 부모님들, 본당의 지도자들, 신부님들, 이 교육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읍니다…합열본당 김마르꼬 3,000원

□ 전동에서 있었던 "인권강연회 및 김지하 문학의 밤" 빗속에도 성황 이루어(6월 25일)
폭우도 아랑곳없이 7~8백여 젊은이들이 모여 주었읍니다. (연사…원주 최기식 신부)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정 태 현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축! 영세 : 100명의 새형제, 자매들이 탄생했읍니다
2. 프란치스꼬 3회 : 1일〈일〉 오후 1시30분
3.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3일〈화〉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4. 어머니 합창단 : 5일〈목〉 오전 10시
5. 성심부녀회 : 6일〈금〉 어머니미사 후
6. 미사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7. 청년합창단 정기총회 : 8일〈일〉 오후 8시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20,647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김 성 룩

1.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3. 재속 청년회 월례회 : 오늘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4. 제 4 치 성령세미나 개최 : 7월 2일~7일까지(6일간)
5. 공소에 순회미사 :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30분
6.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7월 3일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7. 토요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세미나를 받으신 분은 빠짐없이 참석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98,0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성령세미나 : 매주 화요일—저녁 8시
2. 사도회 확대회 : 7일 저녁 8시
   구역장·반장님 저녁미사에 많은 참석 바람
3. 예비자교리 : 일요일 오전 11시·수요일 오후 8시
4.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 오늘 미사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개인의 영적에물 봉헌합시다
5. 제대초 기증 : 장윤옥(데레사)할머니
6. 7월 유아세례일 : 7월 6일
   매월 첫째 금요일 : 10시

□ 지난주 봉헌금 : 40,310원 교무금 : 139,23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학생회 월례회 : 오늘 학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 연중 야외행사
   일시…7월 22일〈일〉 네째주일(우천시 본당에서)
   장소…상관천(상관성당 후편)
   유사…임종을·조영호·이기배 형제, 빠짐없이 출석 요망
3. 본당 유지비 중간(6월말) 결산
   총수입 : 6,410,890원, 총지출 : 5,446,430원,
   잔 액 : 964,460원
4. 보좌신부 사제관 시설공사 결산
   공사비 : 수입…성미957,260원 지출…880,076원
   비품비 : 수입…헌금, 이자 479,003원
   지출…비품구입 555,700원
   총수입…1,436,263원 총지출…1,435,776원
   잔 액 : 487원
5. 十계 영화상영 : 오늘 저녁미사 후 성당에서
   입장료 학생 300원, 성인 500원, 에비자 초대권 (본당 인성회)
6. 오늘은 교황주일(7월 1일) : 인쇄하여 나누어 드린 봉투를 잘 읽어보시고 특별헌금에 정성을 다합시다
7. 예비자교리 : 매주일 공식미사 후 허데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박신부님 지도

□ 지난주 봉헌금 : 219,62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교황주일 : 기도하고 특별헌금 바칩시다
2. 사도회 확대회 : 10시미사 후
3. 수요기도회 : 7월 4일 8시30분
4. 감사
   ① 수요기도회 격려—봉사자·수녀님들
   ② 꽃나무 기증—신현주 부부
   ③ 미화작업에 수고하신 분
5. 부탁 : 이번주에 반장님들 활동하여 교회지시에 협조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88,331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7월 1일 : 교황주일 특별헌금 모금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김영태(도민고) 신부 2주기 : 7월 4일
4. 한국 초대 신부 복자 안드레아 축일 : 7월 5일
5. 누깔다 부녀회 월례회 : 7월 7일
6. 신축기금 : 이세순(10만원), 진북동 익명(13만원)

□ 지난주 봉헌금 : 163,94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엽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사도회 :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8시 30분 미사 후
3. 미사시간 안내
   주일—새벽 5시 반, 8시 반, 10시, 저녁 8시
   평일 : 새벽 5시, 저녁8시(토요일은 오후 5시반미사)
4. 예비자 교리안내 : 학생—〈토〉 4시 반
   젊은이—〈수·목〉 저녁미사 후
   일 반—〈일〉 공식미사 후

☆ 금주부터 주일금 봉투제 실시

□ 지난주 봉헌금 : 240,212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 축! 견진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1. 사도회 : 금일 저녁미사 후
2. 바오로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령기도 : 매주〈수〉 저녁미사 후
4. 유아세례 : 매월 마지막 주일
4. 6월까지 수입총액 : 3,843,188원,
   지출총액 : 3,788,180원 잔액55,008원

□ 지난주 봉헌금 : 62,655원

* 인 쇄 : 천 주 모 쌀 출 판 사 ☎ ③ 3 2 1 2